

연장11회... 최원준 끝내기 만루포



영화보다 더 극적인 '아기 호랑이' 최원준의 끝내기쇼였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6차전에서 연장 11회 타점 고졸 2년 차 최원준의 끝내기 만루홈런으로 8-4 승리를 거뒀다.

전날 장단 17안타의 타격쇼로 15-7 승리를 거뒀던 KIA는 주말 시리즈에서 2승 1패를 거두며 '위닝시리즈'를 장식했다. KIA를 추격하고 있는 2위 NC 다이노스가 이날 한화 이글스에 1-8, 2연패를 당하면서 3게임 차 밖으로 밀려났다.

끝내기 홈런으로 주인공은 됐지만 마냥 웃을 수 없던 최원준이었다. 앞선 세 번의 만루 상황, 경기장에 아쉬움의 탄식을 가득 차게 했던 인물이 바로 최원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는 롯데 이대호와 KIA 이명기가 홈런을 주고받는 등 팽팽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3-4로 뒤진 7회말 KIA가 나지완의 볼넷과 최형우의 안타로 1사 1-2루를 만들었다. 안치홍의 잘 맞은 타구가 우익수 손아섭의 호수비에 막혔지만 서동욱의 솔로 홈런이 터졌다.

이어진 2사 2-3루에서 김선빈이 타석에서 서자 롯데가 고의 사구를 선택했다. 김선빈이 걸어나가면서 체위진 만루상황, 최원준이 타자가 됐다. 앞선 4회 만루에서 2루수 땅볼로 물러났던 최원준에게 다시 찾아온 만루 기회. 그러나 최원준은 초구에 3루수 파울플라이로 허무하게 물러났다.

만루 약물은 9회에도 계속됐다. 이번에도 앞에 있던 김선빈이 고의사구로 나가면서 1사 만루 상황이 됐다. 플라이 하나면 경기를 끝낼 수 있었지만 최원준은 롯데 손승락과의 승부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물러났다. 이어 김민석까지 2루수 땅볼로 아웃되면서 끝내기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다.

여기에서 끝났다면 보통의 끝내기 경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장 11회말 다시 한번 익숙한 장면이 연출됐다.

최형우의 대주자로 들어갔던 고졸 2년

KIA, 롯데 8-4 제압 2연승

세 번의 만루기회 놓치다

"후련하게 치자는 마음뿐"

김선빈 3연속 고의 사구

차 이진영이 롯데 윤길현을 상대로 중전안타를 때려내며 끝내기 분위기를 조성했다. 안치홍의 중전안타까지 나오면서 무사 1-3루. 안치홍이 무관심 도루로 2루를 밟으면서 무사 2-3루의 절호의 끝내기 찬스가 왔다. 그러나 고장혁의 대타로 들어갔던 오준혁의 스위치 사인 미스로 홈에 들어오던 3루주자 이진영이 아웃됐다. 어렵게 오준혁이 볼넷을 골라내자 다시 한번 롯데가 고의 사구를 선택했다. 김선빈이 세 타석 연속 고의사구로 걸어나간 가운데 최원준에게 눈길이 쏠렸다.

앞선 세 번의 만루 상황에서 고개를 숙여 했던 최원준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윤길현이 초구에 133km 초구를 던졌고, 최원준이 자신있게 방망이를 휘둘렀다. 맞은 순간 홈런이었던 큰 타구였다. 4번의 도전 끝에 경기를 극적으로 끝낸 최원준은 선배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홈을 밟았다. 시즌 두 번째 끝내기 만루홈런이자 통산 18호. 개인 1번째 끝내기 만루포였다.

최원준은 "타석에 들어가기 전 박흥식, 소타 코치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타격을 했다. 상대 투수가 슬라이더를 많이 던진다고 해서 무조건 초구에 승부를 보자는 생각이었다"며 "계속 못 쳐서 부담이 있었는데 선배들이 응원하고 기뻐 온다고 힘을 주었다. (김)선빈이 형이 수비 나가면서 기회 또 온다고 수비 집중하자고 해서 집중을 했다. 이제 더 기회가 없으니까 후련하게 치자는 마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팻팅을 시작으로 김윤동-심동섭-임창용에 이어 마운드를 물려받은 고효준은 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SK 시절이었던 2014년 9월5일 문학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 이후 첫 승리. KIA 선수로 거둔 첫 승이기도 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8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 연장 11회말 1사 만루에서 KIA 최원준이 끝내기 만루홈런을 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5타점 4득점 버나디나 "야구에 만족은 없다"

김기태 "매진 징크스 깼으니 표 맘껏 팔아"

덕아웃 T 특특

▲만족은 없다

최고의 톱타자로 변신한 버나디나. 그는 최근 10경기에서 40타수 15안타로 타율 0.375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27일에는 1회 첫 타석부터 안타를 기록한 뒤 타자일순해 들어선 타석에서 2루타를 때리며 1회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세 번째 타석에서도 2루타를 만든 버나디나는 네 번째 타석에서는 홈런까지 쏘아 올리며 사이클링 히트에 3루타 하나 부족한 활약을 했다. 하지만 5타점 4득점의 활약에도 버나디나는 "야구에서 만족은 있을 수 없다. 그랬으면 다른 종목을 해야 한다"며 "끝나고 연습을 더 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세 명만 일찍 치더라

28일은 프로야구 전반기 마지막 낮경기였다. 하절기인 6월부터는 일요일 경기도 오후 2시가 아닌 5시에 시작된다. 한 주를 마감하는 마지막 경기인 데다 낮경기라 KIA는 경기 전 훈련을 최소화하고 체력 관리를 하는 데 신경을 썼다.

김기태 감독은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어제 안타 못 친 세 명만 일찍 나와서치고 있더라"며 웃었다. KIA는 전날 2개의 홈런 포함 장단 17안타를 터트리며 15-7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1회부터 시작된 안타 행진에 동참하지 못한 세 사람이 있었다. 안치홍, 서동욱, 김민석은 첫 타석에서 모두 볼넷을 골라냈지만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한 장 안 팔고 뒀다는데

KIA가 '매진 징크스'를 깼다. 롯데와의 홈경기가 열린 지난 27일 챔피언스필드에는 2만5000명의 관중이 입장하면서 시즌 다섯번째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

4시 10분 일찍매진 기록된 가운데 관계자들은 "매진 징크스" 때문에 긴장했다.

KIA는 올 시즌 만일 관중이 찾은 4경기에서 모두 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27일에는 1회부터 활발한 공격을 펼치며 15-7 승리로 '매진 징크스'를 깼다. 김기태 감독은 "매진 징크스가 한 장 안 팔고 두었다고 하더라. 1회 점수 많이 뺐고 난 뒤에 팔아도 된다고 했다"는 농담을 하며 웃었다. 김 감독은 또 "징크스 깼으니 이제 표 마음껏 팔아도 된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김여울기자 wool@



전국소년체전 7연패를 노렸던 광주 봉산중 여자소프트볼팀이 8강에서 탈락했다. '자력 미달'을 이유로 주전 선수를 출전 금지시킨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가뜰이나 학생 수 감소로 선수층이 얇아진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의 경직된 선수 참가 규정도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년도 우승팀인 광주체중 여자배구팀도 선수들의 졸업과 신인들의 수도권 이주 등이 맞물리면서 예선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사무처장 공백으로 인한 대응 미흡에 따른 지적도 나온다.

7연패 도전 광주 봉산중 여자소프트볼 8강 탈락

'전년 우승' 광주체중 여배구도 16강서 고배

체육회 '주전 불참' 통보·선수 이탈 영향... 전남 역도 잇단 3관왕

소년체전 이틀째

◇7연패 꿈 '와르르'=봉산중은 지난 27일 충남 아산 한마을야구장에서 열린 제 46회 전국소년체전대회 소프트볼 여자부 8강전에서 서울 신정여중에 0대 4로 제 탈락했다.

봉산중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리 6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올해도 우승 후보로 꼽혀 광주체육계는 '소년체전 7연패'의 금자탑을 쌓을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체육계 안팎에서는 대한체육회의 '주전 선수 불참 통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수층이 얇아 가깝스로 전남(엘리트) 선수 10명을 데리고 대회를 준비했는데 주전 선수가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팀 전력 하락과 분위기 저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대회 시작 하루 전인 지난 26일, 주전 3루수로 출전할 봉산중 A선수에 대해 '소년체전 참가 자격'에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 참가 불가를 통보했다.

대한체육회는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해 선수가 지난해 2학기 개학 이후 전학을 한 경우 ▲폐교 ▲운동부 해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주 외에 ▲가족 중 '근무자'의 인사 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 중 '개인사업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등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이듬해 소년체전 참가를 가능토록 했다.

교육청 전 전화 등으로 우수 선수들을 확보하기 위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제한적 예외 규정으로 애꿎은 어린 선수의 출전 기회를 봉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모가 '지사를 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규정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우수 선수들, 탈(脫) 지역화로 전력 약화=광주체중 여자배구팀은 지난 27일 전남 우정공무원교육원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16강전에서 제천여중에 0대 2로 져 예선 탈락했다. 광주체중 여자배구팀은 전년도 전국소년체전 우승팀으로 2015년도에도 은메달을 목에 건 강팀이었다.

하지만 올 해는 주축 선수들이 졸업한 데다, 기대했던 초등하고 유망주들이 졸업과 함께 연구지가 아닌, 수도권 학교로 옮겨가면서 전력을 보충하지 못한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년도 우승 주역인 중학교 선수들도 광주가 아닌, 경남 진주와 수도권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청소년 역사(力士) 활약 두드러져=전남에서는 개막 이후 역도 3관왕이 잇따르며 선수단 선전을 이끌었다.

강민우(16·완도중 3년)는 28일 아산 안양고 체육관에서 열린 남중부 77kg급에서 인상·용상·합계 부문 금메달을 획득, 3관왕에 올랐다. 신록(15·고흥중 3년)도 전남 열린 남중부 50kg급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 조민재(13·전남체중 1년)도 45kg급에서 생애 처음 3관왕 타이틀을 들어올렸다.

광주에서는 황소진(여·14·광주체중 3년)이 선수단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황소진은 개막 첫날인 27일 양양벨로드롬에서 열린 사이클 여자부 200m 기록경기에서 맨 처음 결승선을 통과했고 28일 열린 500m 독주에서도 시상대 맨 위에 오르며 2관왕을 차지했다. 황소진은 전년도 4관왕이었다.

송창섭(14·광주체중 2년)도 첫날(27일) 열린 남중부 에어로빅 개인전 부문에서 예상대로 금메달을 따내며 광주체육계의 분위기 상승에 한몫을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승환 ML 30세이브...김병현 이어 한국인 두 번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한국인 마무리 오승환(35)이 메이저리그 통산 30세이브를 거뒀다.

오승환은 28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2017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서 3-0으로 앞선 9회말 등판했다.

쿠어스필드 마운드에 처음으로 선 오승환은 안타 하나를 내줬으나 삼진 2개를 곁들여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고 시즌 11세이브(1승 2패)를 올렸다.

오승환은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지난해에는 셋업맨으로 뛰다가 마무리로 19세이브로 시즌을 마쳤다.

이로써 오승환은 지난 시즌 기록을 합쳐 빅리그 통산 30세이브 고지에 올랐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시즌 동안 4개 팀에서 활약하며 총 86세이브(54승 60패)를 기록한 김병현에 이어 한국인 메이저리거로는 역대 두 번째다.

/연합뉴스



제50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에서 여자대학부 1위, 남자일반부 3위를 차지한 광주시산악연맹 선수단이 대회가 끝난 뒤 연맹 임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대 女대학부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1위

광주산악구조대 남일반부 3위

제50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에서 전남대가 여자대학부 1위를, 광주산악구조대는 남자일반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광주시산악연맹(회장 임승진)에 따르면 27~28일 경남 김해시 김해운동장과 분성산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대학부에서 차태양(산림자원학부4)·전하진(산림자원

학부 3)·임주희(바이오에너지공학과2)씨로 구성된 전남대 팀이 1위에 올랐다.

남자일반부에서는 광주산악구조대 이경주·이선규·임영진씨 팀이 3위에 입상했다.

또 광주시산악연맹 소속 최유진 공인심판은 우수심판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은 대구시산악연맹이 차지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